

서 평

▮ 『유아의 마음이론과 그림책 세계』

박 성 주

▮ 『다문화시민교육』

신 다 영

『유아의 마음이론과 그림책 세계』

(박선희, 에피스테메, 2024)

박성주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 읽어내기가 어렵다. 가끔은 내 속도 내가 모를 때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대개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 현재 마음이 어떠한지 추론하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보여주는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을 이해하는 경험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아이들은 수많은 경험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타인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일까?

교실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워서 감정이 상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한다. 허락 없이 친구의 장난감을 가져가 장난감을 뺏긴 아이가 울고 속상해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보면, 교사는 대화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교사는 장난감을 가져간 ‘아이에게 왜 친구 장난감을 가져갔어?’ 묻고, 아이는 ‘그 장난감으로 놀고 싶어서요’라고 답한다. 그러면 교사는 ‘친구가 놀이하던 장난감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묻는다. 아이에게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지 하고 생각해보게 한다. 장난감을 뺏은 아이는 장난감이 갖고 싶다는 바람에 의해 장난감을 뺏는 행동을 실행

한다. 장난감을 갖고 싶다는 바람이 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마음이론이다.

마음이론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 박선희(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명예교수)가 유아의 마음이론 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마음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발달단계와 유아기에 발생하는 기쁨, 두려움, 화 등과 같은 정서가 발달함에 따라 적절한 그림책이 무엇인지 『유아의 마음이론과 그림책 세계』 책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한다. 제1부에서는 마음이론이 무엇인지, 마음이론의 발달과 관련하여 마음이론과 관계된 가상놀이, 사회적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마음이론을 담고있는 그림책을 읽을 때 부모와 교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고 질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다. 제2부는 마음이론과 그림책 세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마음이론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할 수 있는 평가 준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준거에 따라 선정된 양질의 그림책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저자가 선정한 50권의 그림책은 유아 자신과 가족, 친구에 관한 주제, 유아들의 생각하는 능력과 관련된 주제, 유아들의 믿음과 거짓말, 유아들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행복, 슬픔, 불안, 공포 등 정서와 관련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주제별로 그림책의 목차와 함께 그림책 내용 요약, 그림책 해석을 담았으며, 유아들이 그림책을 읽음으로써 간접 경험하게 되는 마음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아이들의 삶을 반영한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은 재미있는 장면에서 깔깔 웃고, 슬픈 장면에서는 한없이 진지해지기도 하며 그림책 속 세계를 마치 실제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인 것처럼 느낀다. 또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은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따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지 상상해보기도 한다. 이처럼 그림책은 아이들에게 보고 읽는 즐거움 이상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식사시간에 편식하는 그림책 주인공을 떠올리며 ‘엄마, OO이는 콩 절대 안 먹는데 나는 잘 먹어!’라며 작가가 자연스럽게 숨겨놓은 의도에 넘어가 평소에 안 먹던 반찬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그림책은 친구들과 리 다투어 마음이 상하는 상황,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아 속상한 상황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그림책을 읽고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아 속상한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통해서 비슷한 실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을 연습해보고, 또 상상했던 것을 실제로 옮겨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림책에서 보았던 상황, 이야기, 감정이 현실로 이어지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해해볼 수 있게 된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가 많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자는 엄마의 말에 드러눕는 아이, 비 오는 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맘에 안 들면 물이 질퍽질퍽한 땅에 누워 울어버리는 아이를 상대하다 보면 진이 쏙 빠진다.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지,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면 그림책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볼 수 있다. 저자는 화를 내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정서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화를 내는 것이 꼭 부정적이지 않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것이 자주 일어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어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저자는 그림의 색채 변화를 사용해 주인공의 강렬한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림책을 읽으며 아이들은 자신과 주인공을 동일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화난 감정을 공감하고 주인공이 화를 가라앉히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아니야, 내가 더 많거든?’과 같은 비교의 말부터 ‘우리 집이 가장 커!’, ‘우리 형이 가장 힘세! 너희들 다 지거든!’, ‘우리 차가 가장 빠르다고 했거든.’ 처럼 내가 속한 곳,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는 표현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자신의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은 다 별로이고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이를 듣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저자는 아이들에게 아직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 저자는 『나만 최고야!』 그

림책을 소개한다. 주인공인 두꺼비는 나르시즘에 취해 자기 모습이 최고로 멋지다고 생각한다. 이런 두꺼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다름 아닌 자신을 보고 징그럽다고 도망가는 물뱀을 만난 것이다. 두꺼비는 이 일로 누군가 자신을 싫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일지 알게 되며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저자는 그림책에서 표현되는 화려한 색과 구도, 두꺼비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이 책을 읽는 아이들이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통해 드러나는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마음이론을 길러 나간다. 상대가 바라는 것, 의도가 무엇인지를 추론하는 능력인 마음이론이 발달하면서 상대와 잘 지내기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이들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행동해야 한다. 마음이론이 발달하고 공감능력이 생기면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잘 지내는 것, 친구를 사귀는 것, 가족 안에서 나의 존재를 알고 가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등 아이들은 영유아기부터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구성해나가게 된다. 영유아기부터 시작된 사회적 관계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존재로 크기 위해서는 마음이론의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가 접하면 좋을 법한 다양한 삶의 예시를 그림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주인공의 상황을 이해하고 주인공의 마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다. 예비, 현직 교사에게는 그림책을 통해 생각해 볼 것에 무엇이 있는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그림의 색채와 질감에 대한 저자의 설명을 통해 그림책을 해석하고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는 눈을 기르게 돕는다. 문체와 언어표현, 그림책의 시점, 시·공간적인 요소까지 그림책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그림책을 감상할 때에도 다양한 요소를 확인하며 그림책을 즐길 수 있게 한다. 특히 이 책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 주인공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고, 그림책을 읽을 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의 예시와 더불어 각각의 그림책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점들이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다. 마음이론을 발달시키기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림책을 찾는 교사와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문화시민교육』

(이해주 · 이로미, 에피스테메, 2024)

신다영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다문화(multiculture)의 사전적 정의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다. 오늘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며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들이 얽히면서 이제 다문화 사회는 우리 삶의 조건이 되었다. 한 사회 안에 이질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지닌 행위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차이(difference)에 관한 사안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전 지구적으로 다문화사회가 보편화되는 맥락 위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 성, 장애, 계급 등 다양한 차이들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적 개입으로서 다문화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논의한다.

서문에서 저자들은 다문화시민교육을 “다문화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그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이해주, 이로미, 2024, 5쪽)으로 정의한다.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 다문화적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자신이 속한 국가와 지역, 문화공동체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나아가 ‘세계 속의 나’로서 자기인식과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는 자세와 실천적 노력을 포함한다. 이 책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시민교육이 생애 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 전 영역에서 다문화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주제 면에서 크게 네 갈래로 구성된다. 먼저 1-3장에서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시민성 내용의 확장과 그에 따른 시민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탐색한다. 기존의 시민성 개념이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정체감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오늘날 다문화사회의 시민성은 개인의 출신 국가, 성, 언어 등에 따른 복합적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그 내용이 다원화되고 있다. 가령 생태적 시민성, 여성주의적 시민성, 다문화시민성이 새로이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이다. 저자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따르는 만큼, 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변화가 필요하며,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 7장까지는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주요 국가의 다문화사회 특징과 시민교육의 현황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는 우리나라의 현황과 특징을 다루며, 5-7장은 각각 다문화사회로서 미국과 캐나다(5장), 영국과 프랑스(6장), 일본과 대만(7장)의 맥락과 시민교육 정책을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사회문화와 역사적 맥락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전개 양상, 선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 문제에 관

련된 쟁점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다문화시민교육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심의 다문화정책을 만들어 가는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는 재일한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이 ‘후레아이칸(ふれあい館)’이라는 복합문화교육공간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간다. 대만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마을 단위 평생학습을 위한 ‘커뮤니티대학’을 만들고 이주민과 대만의 원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안에서 이주민과 선주민의 만남과 교류를 촉진하고,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를 배울 수 있는 학습공간의 창출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 번째로 8장에서 10장까지는 다문화시민교육의 장소로 가정(8장), 학교(9장), 지역사회(10장)를 조명하면서 다문화시민교육의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시민교육이 주로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한다.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를 상상해본다면, 앞으로 다문화시민교육의 장소는 학교를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가정은 영유아 시기부터 자녀가 부모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수용하는 감수성을 키우는 무형식학습의 장소이며,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성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의 장면을 넘나들며 다원적 시민성을 (재)학습할 수 있다. 향후 다문화시민교육의 실천 현장에

서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다문화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안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네 번째 갈래로 11장에서 13장까지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겪는 차별 문제를 인종(11장), 여성(12장), 장애(13장)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들여다본다. 이 장들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가 오랜 역사를 지닌 구조적 문제임을 느끼게 한다. 서구 사회에서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GDP가 낮은 국가에서 온 이주 노동자를 차별하는 경제인종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공적 영역에의 참여에서 배제되어왔다. 장애인 또한,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이분법적 사회 구도 속에서 문제화되고 배척당해왔다. 저자들은 진정한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모두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그리면서,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소수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다문화시민교육이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마지막 14장에서 저자들은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다문화시민교육의 방향으로 보편적 인권의 존중, 다문화주의의 수용, 다양성과 사회통합 증진,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제시한다. 다문화시민교육은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 개혁의 출발점이며, 세계시민 모두의 연대가 필요한 실천적 노력임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이처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시민교육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겠으나, ‘다양성’, ‘존중’, ‘수용’, ‘통합’이라는 언어의 뒷면에는 ‘차이’와 그러한 차이에 기반한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 책의 곳곳에서 차별의 문제들이 설명되지만, 그 차별을 작동시키고 재생산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나 권력 관계에 대한 분석은 다루이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현실에서 차별의 문제는 중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띠며, 이를 성찰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결코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저자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해야 할 대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갈등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엉겨 붙어 있는 쟁점들을 드러낼 때, 타자를 이해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다문화시민교육이 어려운 까닭은 저자들이 이야기한 바처럼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실천적 태도의 함양을 목표”(이해주, 이로미, 2024, 404쪽)로 하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시민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집단이 나와 다른 타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윤리적 태도를 지닌 존재로 ‘되어가기(becoming)’를 요청한다. 이는 단순히 너와 나의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는 행동을 취하는 ‘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교육 장면에서 이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혹은 다문화시민성은 과연 가르쳐질 수 있는 것인가? 다문화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의문에 부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다문화시민성에 대해 성찰해보고, 어떤 교육적 언어로 다른 실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일이 앞으로

의 과제로 여겨진다.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한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교육’ 방향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다문화시민교육의 주요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주목하는 까닭은, 인종, 성, 계급, 종교, 장애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닌 행위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삶터이자, 우리 모두에게 타자와의 마주침이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시민성 학습 과정을 ‘타자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을 지는 존재로 되어가기’로 이해한다면, 지역사회는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차이를 ‘느끼고’, 상대의 반응에 응답하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장소로 재의미화된다. 지역사회를 다문화시민성의 학습 장소로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민들과 이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지역평생학습기관, 평생교육사, 시민단체와 같은 풀뿌리 행위자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제안들에 기초하여, 앞으로 지역사회 다문화시민교육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삶을 나누고 연대하며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기반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다문화시민교육에 관한 개론서의 성격을 지닌다. 다문화시민교육을 처음 접하거나 호기심을 갖게 된 학습자에게는 우리 사회를 다문화사회로 읽어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 시민교육 담론 내의 유사 개념어들을 정리하고 다문화시민교육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지역활동가나 교육자에게는 다문화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교육 장면에서 문화적 차이와 문화다양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고민하게 한다. 다문화시민교육은 정형화된 프로그램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의 역동, 학습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이해주, 이로미, 2024). 이러한 역동성과 가능성에 주목하여, 다문화시민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